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10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녹지정책과	담당자	• 녹지정책팀장 김영미 ☎440-3661 • 담당자 김은정 ☎440-366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22개 노선에 특색있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 군·구별 1개 이상 노선, 노선별로 은행나무 등 수형조절 전지작업 실시 -
 - 가로수 T/R을 조절, 배전선로 접촉 최소화·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로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군·구별로 특색있는 명품 가로수길(특화가로)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색있는 가로수의 수형(樹形)*을 조절해 수목 생육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명품 가로수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 종류나 환경에 따른 특징을 지닌 나무의 모양

시는 지난 2021년 인천애뜰 주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은행나무 142주로 가로수 수형 특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모든 군·구로 확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개 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목표로 중구 제물량로, 연수구 비류대로, 계양구 봉오대로 등 22개 노선, 약 33km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특화가로에는 총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들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즘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을 노선별 목표 수형으로 정해 연간 2회 이상 약한 전지작업을 실시해 가로수의 수형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수관 폭이 과대해진 가로수의 T/R율(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 비율)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전선로 접촉 최소화, 각종 교통표지판 시계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간판 가림 해소 등으로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일부 민원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가로수는 도시 숲의 중요한 요소로써 특색있는 수형 관리만으로도 인천을 대표하는 고품격 도심 환경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로수 관리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연수구 비류대로 버즘나무(2018년)